

□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확정

5.23: 4.77로 예산분배

총학생회 전년도 동일, 총대 50만원 삭감

총대위원회(의장: 김용근·독문 4)는 지난 23일 대의원총회에서 89학년도 학생회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등록예산인원 6천 6백명을 기준으로 한 올해 학생회의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6천 4백만원이다.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

과대학은 수의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10만원이 증가하고, 여학생회는 20만원, 동·연은 49만 5천원이 증가 배분받게 되는 데 대체로 전년도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자치기구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한 학생회 세출예산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학생회비 3백 10만 명 증가됨에 따라 3백 10만 명 ▲학생회비 전년도와 동일 ▲예산지분에 있어 단대 학생회와 각 학생자치기구간의 비율은 작년 5:5에서 올해는 자연대 신설로 5.23:4.77로 배분 ▲총학생회 전년도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고 총대위원회는 50만원 삭감, 여학생회는 20만원 증액, 동·연 49만 5천원 증액 ▲각 단체 행사비, 사무용품비, 기구장 관공비등을 균등지급 ▲각 단체 장학금 보조비 10만원 균등지급 ▲각단체의 차등은 행사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비의 차에 의함 등 7개 항목이다.

故 姜昌赫교수 추모특집 「耽羅文化」 9호 발간

본교 탐라문화연구소(소장: 梁淳秘교수·국교)에서 「耽羅文化」 제 9호를 발간했다.

이번 제 9호는 본교 사범대학 교과과장등을 역임하다 지난 해 별세한 故 姜昌赫교수의 1주기 추모특집으로 엮여졌다.

탐라문화연구소 소장은 발간사에서 「姜昌赫교수의 교육분과 상임연구원이었다는 故人은 李白의 「對酒不覺夜 落花盈我衣」라는 시구처럼 술을 알고 맛을 즐겼으며, 누구보다도 자신의 전공에 애착이 있었으며, 短縮의 신사였다」고 추모의 말을 남겼다.

이번호에는 교육심리학회 측에서 제주도 민요·설화에 나타난 제주인의 성격에 규명하는데 노력했던 故 姜昌赫의 「兩難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를 비롯, 「제주도 영어교육과의 현황과 전망」(김

순택), 「秋史 金正喜의 漢文書翰考」(양순필), 「제주도 방언의 고찰(2)-문헌어와 대비하여」(송상조), 「제주도 高山里 龜庵 崔益鎰의 교육활동 연구」(고창석·양진진), 「제주도 성주읍의 구설 및 長短의 연구」(김은자) 등 9편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었다.



△연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연합발대식이 거행됐다.

학생자치기구 연합발대식 거행

총학생회장, 「자주적 학원건설에 앞장설것」 다짐

89학년도 각 학생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이 지난 14일 총학생회(회장: 홍명환·행정 4) 주최로 학생회장, 학생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외음악당에서 거행됐다.

지난해와 달리 연합으로 치뤄진 이번 발대식은 오전 11시 음악대의 길놀이로 시작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총학생회장 인사, 학생회장 격려사를 비롯, 제주지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제총협) 축사, 운영위원

「全教會」서 학칙 13개 조항 개정

성적평점 1.3이하인者 재이수규정 등

지난 14일 학칙개정(안) 및 본교 평의회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교수회의가 4130강의실에서 1백70여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의 토의 안건인 학칙개정안 심의에서는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자에 대한 전과금지조항 신설(제18조 제2항)을 비롯 신설학과인 수의학과와 이수학점 6학점에서 8학점으로 개정됐다.

또한 전체교수회의에서 평의회의 목적 및 구성, 심의사항 등을 규정한 평의회규정(안)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14개 항목에 대한 심의가 있었

다.

한편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제32조 제4항에서 6학점에 해당하는 「성적평점 1.3 이하인 자에 대한 재이수금지 규정」을 신설 13개 항목이 모두 통과됐으며 예비역 무관후보생 해산병과와 군사학이수학점이 6학점에서 8학점으로 개정됐다.

또한 전체교수회의에서 평의회의 목적 및 구성, 심의사항 등을 규정한 평의회규정(안)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연혁안내」를 시작으로 2부에서 「JES NEWS PARADISE」를 비롯 「종합구성」 「보도기획」 「Sound effect 구성」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교육방송국에서는 3월 6일부터 30일까지 제27기 수습직원도 모집하고 있다.

부직신청서 접수 장학담당관실서

지금까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담당해오던 부직신청업무가 장학담당관실로 이전됨에 따라 앞으로 부직을 원하는 학생들은 부직신청서를 장학담당관실로 접수해야 한다.

한편, 장학담당관실에 의하면 89학년도 1학기 부직신청 접수는 오는 4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희망자들은 이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申幸淑교수 著書발간 「제주농촌사회의 권력구조」

사회학과·申幸淑교수가 「제주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라는 저서를 일지사에서 출간했다.

이책은 사회학적 전통에서 오랜 연구주제가 되어왔던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본도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조사서를 하여, 경험적자료에 바탕을 두어 집필된 책이다.

JESBS 공개방송 신입생 환영행사 결해

제 6회 「신입생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가 교육방송국(실무국장: 김창섭·사학 3) 주최로 지난 22일 2중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1부에서 「방송

「總代」상반기사업계획 확정

4월10일 학생들의 의견수렴 예정

지난 23일 2중중강당에서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있었다.

총 1백 8명의 대의원중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각 학생자치기구 및 단대별 예산안 승인과 89년도 총대사업계획승인·간부인준보고와 안건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승인된 89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88학번기 감사 및 교육지 발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의견수렴활동, 회보발간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손자손의 광장준비, 집종의견수렴활동 ▲5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공청회(손자손의 광장)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아라촉제감사, 회보발간

한편, 이번 총회의 주요안건 중 하나였던 학칙개정안 발의는 3차개정을 통해 학칙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정확한 학칙을 만들기 위해 다음 총회로 연기되었다.

「在日耽羅硏會」, 도서기증 본교 탐라연구소에 일본동경소재 耽羅硏會(회

동아리연합회

14일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17일 민주광장에서 민족극 「살인죄」가 공연되었다.

또한, 각 동아리에서도 신입생을 위한 각종 행사가 14일부터 25일까지 교내일원에서 행해졌는데, 신입학원은 이날 31일까지 각 동아리에서 모집하고 있다.

「동아리」현판식거행

지난 14일 학생회관 2층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고선환·농경 4) 현판식이 9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아리연합회」는 「새를 연합회」라고 쓰여진 기존의 현판을 내리고 「동아리연합회」라고 음각된 새현판을 걸고 공식 출범을 했다.

현판식에서 이어 문화선전대의 동아리지신발기가 있었는데 동아리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를 연합회」란 단어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새」를 우리 민족의 순수언어를 채용하자는 의미에서 「동아리연합회」로 현판을 바꿨다」고 현판개정의의를 밝혔다.

총 학생회

15일 아외음악당에서 「재학생·신입생이 함께 하는 민중가요 경연대회」가 있었으며, 16일에는 「신입생 환영회」 청년학생총선 성사를 위한 단축 마라톤 대회, 「현단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연사: 장기표·전민연)이 있었다.

여 학생회

22일 여학생 휴게실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한바탕」이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도내 4개대학 「濟總協」 결성

본교 총학생회장 상임의장으로 선출

제주지역 총학생회협의회(의장: 홍명환·이하제총협) 결성대회가 30일 제주전통대 시청각교육실에서 도내 4개 대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대학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한 제총협은 이날 대회에서 본교 홍명환총학생회장을 상임의장으로 선출하고, 결의문 채택, 사업계획서 발표, 세계청년학생총선사업계획서 발표등이 있었다.

사업계획으로는 4월 7일까

지 4·3 추모사업과, 4·19혁명계승사업, 5월달에 5월관주한계승사업, 6월 농촌환경운동, 7월 평양세계청년학생총선등이며 월 「정기소식지」도 발간할 예정이다.

홍명환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자주, 민주, 통일」의 쓰러질수 없는 깃발을 들고, 제주지역의 발전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대동단결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며 제주지역 청년학도들의 결의를 강조했다.

「돌하트방」

「총에 총」「칼에 칼」

함무라비법전은 살아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정부는 지난 22일 공공시설 습격, 방화에 대비, 일선 경찰관에게 무기를 지급하여 위급한시기에 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

하필 경찰서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무기가 인바살상용인 M-16이여야 하는가. 이것은 공공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피범람 가슴에 총구멍을 내겠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권력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만큼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간분부자의 이러한 「방언」은 단속공감장비로 한 것인지, 실행할 것인지 모르나 이것은 제 2, 제 3의 광주사태를 유발하겠다는 처사로 보여지고,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짓누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경찰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실정이고,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민주화를 외치고, 통일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좌절, 용공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독단이다.

화염병은 수증압력 무기인데, 이에 대한, 총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에 맞먹지도 맞지않고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유발하는 행위이다. 창세기 이래 국민에게 전투용무기인 M-16 총기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시위도중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방화죄라는 의식이 있는 망정 살상의 범죄의식까지 동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M-16총기사용은 시위도중 경찰관의 대치상태에서 화염병을 사용하는 행위와는 도마를 성격이, 명백한 범죄이다. 이것은 하나의 범죄를 마키위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이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여러 국가들중 영국은 대차수상이 처음 집권당시 노동자들의 시위가 대단했지만 최후단 사용은 전혀 없었고 북아일랜드의 경우 에이테혁명군의 시위를 진압하는 데 노획했던 故 姜昌赫의 「兩難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를 비롯, 「제주도 영어교육과의 현황과 전망」(김

세제여러 국가들중 영국은 대차수상이 처음 집권당시 노동자들의 시위가 대단했지만 최후단 사용은 전혀 없었고 북아일랜드의 경우 에이테혁명군의 시위를 진압하는 데 노획했던 故 姜昌赫의 「兩難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를 비롯, 「제주도 영어교육과의 현황과 전망」(김

87년 6월항쟁 이후에 최후단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이것 또한 시정되지 않고, 다시 경찰에서 총기사용 결정까지 이루어져 공권력을 빌자해 국민들을 물리적, 강제적으로 억압하려는 발상이 도대체 정신이健全的 사람의 지시인지 의심스럽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일수록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원천봉쇄수권령을 일시에 걸러하는 초강경 진압의 행위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화염병에 대항하여 정부당국이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악성 알레르기 반응은 반드시 초기에 고쳐져야 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일수록 공권력의 행사는 신중히 재 검토되어야 하겠다.

【德】

조교재임용 회수제한규정 철폐요구

1. 청원서 제출 경과

① 1989년 1월 31일 조교 임용규정 제 6조(조교 재임용회수 제한규정)의 삭제를 바라는 청원서 제출.

② 1989년 2월 8일 교육관계법 개정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

③ 1989년 3월 8일 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제 2차 청원서를 제출.

④ 1989년 3월 15일 평의회로 청원하라는 회신.

⑤ 1989년 3월 30일 평의회에 제 3차 청원.

2. 청원이유 및 주요내용

① 현행 조교임용규정 제 6조 2항에 한하여 재임용(단,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총장허가시 학제장회의를 거쳐 연장가능)

②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조교는 1년 단위로 임용한다」(제 11조 3항)라고한 규정되었을 뿐인에도 재임용회수를 제한하는 본교 조교재임용규정은 상위법과 모순됨.

③ 국립종합대학교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감원	총남	총북	전남	전북
제한유무	무	무	무	2년	3년
비고				개정	개정
				작업중	작업중

구분	부	부	부	부	부
제한유무	무	무	무	무	무
비고					

④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함에도 본교 조교는 재임용 회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기한부 공무원」으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있어 조교 본연의 임무에 정진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조교 개인은 물론 대학발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못함.

3. 우리의 의견

① 대학교원 재임용제나 조교 재임용회수제한규정은 대학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유신적 잔재임. 과거 외부의 압력, 또는 총장 자의로 조교를 임명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부당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이 필요했으나, 현행 조교 임용규정(85년 12월 28일 개정)에는 신규임용시 「학과교수회의」에 임의하고 있어 재임용 여부 또한 「학과교수회의」에 임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학자율화의 취지에도 부합함.

②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법이 개정후에는 조교임용도 공개채용과 신분보장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우선 그 중간단계로서,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교 재임용회수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③ 정적으로 「학과교수회의」와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통해 재임용함으로써 조교재임용제에 신중성을 부여토록 강력히 촉구함.

④ 현재의 조교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전원 학과로 복귀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파견근무도록 해야 함. 또한 여자조교 임용시 「학과교수회의」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특별추천사유서」를 제출토록 함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을 유린하는 처사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임.

1989년 3월 30일

제주대학교 조교협의회

왜! 제주도민은

탐동 매립땅을 환수 받아야 하는가?

하나: 시급한 개발이 아닌데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사업자가 관계기관과 결탁하여 법 개정 7일전에 부정한 수단에 의해 매립면허가 발부되었기 때문이다.

둘: 그동안 이루어진 제주지역 개발은 순박한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만적인 독점개발들이 투기성 개발이었다. 앞으로 지역개발에서 결코 탐동과 같은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는 함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탐동 매립땅을 환수 받아야 한다.

※본 대책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학생 3분을 급히 찾습니다. 자격은 본교에 재학중인 지역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구대 ☎ 634번) 지역조사위원회 사무실

50만도민 단결하여 개발이익 쟁취하자!

제주대학교 탐동불법매립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성북구 정릉3동 653-4
전화: 914-1621

신주파괴와 도로훼손을 위해 좌익분자들에게 동원되었다.

그 당시에는 어린마을에서 해방이 이제 곧 오리라고 믿고 있었다. 당시 나는 민애청(민주국청년동맹)에 가입했었는데 이단체에서는 산사람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일부를 담당했다. 그러나 남포당에는 20살이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나는 무서워서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자유당시절이 다시 올까 두렵다. 만약 내가 말하면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걸려 얼마나 징역살지 겁난다. 비록 우리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지만 젊은 학생들은 꼭 4·3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한다.

○...중언: 정용남(59세·한림을 명월리거주) 당시 18세였던 정용남씨는 용포리 통조림공장 폭대기에 인민공화국기가 걸린것을 본적이 있다고 했으며 아마 용포가 좌익계들의 근거지였을것이라고 말했다.

4·3 사건 당시 18세였던 정용남씨는 해안마을인 용포리에서 좌익계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것이라고 얘기했다. 용포리에 있던 통조림공장 폭대기에 인민공화국기가 걸린 적이 있었다는 것이 그 근거라 한다.

정씨가 살고 있던 통영에서는 사건초기에는 낮에는 행동에 제약을 받지않아 발발일 계속할 수 있었다 한다.

한림국민학교에 군인이 주둔하면서 동네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군인들이 산속이라고 지명 한 사람들은 무조건 끌어가 수용했다. 이렇게 수용된 명월리 지역주민 50여명 정도가 한꺼번에 총살당했다. 정씨는 학살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모술로 송악산동에서 주민들을 무더기로 총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주동자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고문은 팔과 다리를 함께 묶어서 그 사이에 나무를 끼워 들었던 비행기 태우기, 전기고문, 코에 뜨거운 물붓기, 큰 나무로 마구 때리기등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정씨는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아무런 진상규명이 없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여부를 밝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주사태와 같은 진상규명운동이 활발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국가가 인정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4·3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탑이라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중언: 오대현(58세·한림을명월리거주) 당시 17세였던 오대현씨는 군인들에 의해 소가될 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에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다. 오대현씨의 친구들은 사태에 전부 죽음을 당해 57~8세 전후의 사람은 마을에서 오세배에 불과하다고 한다.

당시에는 무조건 피해야 했다. 산에 있는 사람과도 서로 피해야 했다. 산속에는 반동분자로 몰리고 군인들에게는 빨갱이로 몰리면서 지냈다.

그 시절에도 먹고 살기위해 밭일을 해야 했다. 혼자서 농사를 지으려나 너무나 겁이 나서 술을 마시면서 일을 했다. 내 친구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우리마을의 민보단원 40명이 거의 죽음을당했다. 왜냐하면 동네사람중에 군인에게 빌붙은 아부꾼이 있어서 애꿎은 양민들을 중상모략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아마 군대가서 죽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마을의 젊은 남자는 거의 모두죽고 다쳤다. 나도 소개당해서 내려갔을 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다.

○...중언: 김순철(59세·표선면토산리 거주) 표선백사장 대학살이 있었을 당시 실제로는 18세였으나 호적나이로는 17세였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내가 살고 있는 부락은 토산리이고 해변가에 토산2리가 있었는데 1리주민들을2리로 소개시켜 버렸다. 48년 음력 11월17일과 18일 표선백사장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거기서 18세이상부터 40세까지와 18세이하로 나누어 서게 했다. 나는당시 호적으로는 17세였고 실제 나이로는 18세에서 친구하고 장난으로 밀고 달리고 하면서 "난 여기 서겠다, 넌 저리 서라" 하며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후18세이상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당할것을 짐에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적에 딸20여마리, 소30여마리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와서 말은쏘아 죽이고 소를 끌고가는 우리는 아무말도 못했다. 그때 조금이라도 군인들의 뜻을 거슬리면 무조건 총구를 겨누었다. 우리 아버지도 당시 연세가60이 넘었는데도 아들들이는 군인에게 항까지 맞았다.

산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않았다. 다만 집안이 끝날무렵에는 마을내려와서 식량을 가져가기는 했다. 그러나 애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중언: 김수철(53세, 표선면토산리거주) 표선백사장에서 마을의 청장년들이 모두 학살당

했기 때문에 12살의 어린나이를 마을주둔 군인들에 의해 보초를 서야만 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산에 올라가도 죽고 안 올라가도 죽게 되어 있었다. 산에 오른 군인들과 밀에 있는 군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산에 오른 군인들은 철도를 쓰고 밀에 남은 군인들은 하얀 띠를 둘렀다.

군인들은 폭도를 진압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버리면 진압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월남전에서처럼 무조건 학살했다.私感에 얽힌 개인의 필요가 들어간면 죄의 유무를 묻는 일도 없이 덮어놓고 사살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 보름달이 뜬날밤, 18세에서 40세까지의 마을사람들을 모두 표선백사장에 집합시켜 놓고 18세부터 30세까지, 30세에서 40세까지를 분류, 이들을 모두 학살했다. 이 집단 학살이 17·18일 이틀에 걸쳐 있었기때문에 음력 11월 17·18일이되면 이집저집에서 다 제사를 지내 마을이 마치 명절날 같은 분위기가 된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두 학살당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보초를 설 수 밖에 없었다. 보초를 서다가 졸면 옥지에서 내려온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때는 먹을것이 없어서 풀잎을 따다먹고 물을 많이 먹고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소금을 한웅큼씩 집어먹곤 했다.

○...중언: 김양하(49세·표선면토산리 거주) 4·3 당시 대표적 부락인집단학살극중의 하나인 표선백사장 학살사건에서 살아남은, 작은아버지, 큰 형님이 학살당했다. 사건이후 지금까지 표선백사장을 바라보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그때 당시 표선백사장에서 살아남은, 작은아버지, 큰 형님이 돌아가셨어. 큰형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데 얼마 안돼서 이 곳 실정을 몰랐어. 그랬는데 해안 떨어지면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형님을 찾아다니. 그래서 형님이 밤에 나갔다면 부엌에 조질대를 천장위까지 쌓아놓고 그속에 사람들이갈만한 공간을 비워뒀어 그 속에 숨곤 했지.

당시에는 대학나 사람이 몇안돼서 외부에서 막 나오라고 권유를 해도 자기가 어느쪽으로든 집을 나서면 가족이 전멸하리라는 위압감때문에 절대 나서지 않았지. 그런데 학살을 당했으니 허무하게 돌아가셨지.

내가 추측컨대 토벌대가 산에서 공비들한테 피습을 당하자 그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인접부락인 우리마을을 덮치기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17·18일에는 남자들이 전부 학살되고 여자들은 26일날 죽었어. 여자까지 죽인 이유는 아마 군인들이 처녀들을 노리게함으로써 살다가 후사실이 밝혀져 문제를 당할까봐 학살한 것 같아.

표선백사장이 지금도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나는 사태이후 지금까지 그곳에 한번도 들어가지 본 적이 없어. 너무나 한이 맺힌곳이 돼버서 백사장을 볼 때마다 4·3 사건을 되새기게되거든.

이제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부락적인 차원에서 연중 행사로 위령제라도 지내야되지 않나. 그 후에 위령탑도 건립해 억울하게 죽은희생자들을 기려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지. 우리사태의 한은 우리대에서 풀어야지 이 한이 그대로 우리사태에게까지 이어지면 안되지. 【특별취재반】

잊지 말자



4·3관계문헌

○...他意에 의해 매몰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도 지루한 작업이다. 이 힘겨운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자료의 부족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4·3을 연구중이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4·3자료문헌을 한데 모아보았다. 자료는 주로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문헌 색인이 4·3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지면 관계상 수차례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교지 및 대학신문 >

- 고대신문. 4·3의 연구와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1987년 10월19일.
- 「연세」25호. 제주도 4·3봉기의 원인과 결과, 역사연구회, 연세대학교.
- 외대학보. 제주민중항쟁의 성격규명을 위하여 「외로운 대지의 깃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1988년 4월12일.
- 아주대학교. 민족해방투쟁의 관점에서 재조명해본 4·3과 4·19 「제주도의 피는 민족해방의 함성」, 1988년 4월12일.
- 대학주보. 「아! 피의 섬 제주도, 한라산이여」, 1988년 3월7일.
- 중대신문. 「4·3」지위지기를 강요당한 역사, 1988년 3월30일.
- 고대신문. 다시 보는 현대사 「제주도 4·3 민중항쟁을 조명한다」, 1987년 10월19일.
- 부대신문. 제주도 4·3항쟁 40주년 특집 「피의 섬 제주도, 4·3이여!」, 1988년 4월4일.
- 경남대학교. 4·3 무장봉기의 원인과 그 이해, 1988년 4월8일.
- 건대신문. 4·3사건의 현장 제주도를 가다 「전사이자 빨갱이였던 한라산」, 1987년 9월21일.
- 건대신문. 분단구조의 세계사적 계기와 전개 「단독정부수립과 민중의 저항」, 1988년 5월3일.
- 동아대학보. 이태우로기에 묻힌 역사의 사건 「4·3 제주도 민중항쟁-잠들수 없는 남도의 한」, 1988년 4월4일.
- 건대신문. 은폐된 민중사복원 위한 단초, 1989년 3월13일.
- 전대신문. 952호, 4·3 항쟁의 실체, 1988년 4월14일.
- 전대신문. 963호, 분단문화 극복의 현대적, 1988년10월13일.
- 영대신문. 364호, 역사의 재인식, 4·3 민중운동의 본질, 미군정과 반통일세력에 맞선 민중투쟁, 1988년11월23일.
- 현대신문. 466호, 제주도 4·3 민중봉기의 역사적 재조명, 1988년 3월25일.
- 국민대학교. 476호, 4·3 재조명-4·3 제주 민중항쟁은차별한자기해방투쟁, 1988년4월11일.
- 국민대학교. 499호, 4·3 항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989년4월3일.
- 현대신문. 4·3 민중사를 보는 시각, 1988년 5월2일.
- 현대신문. 문학속에 나타난 4·3 「좌폭속에 되살아나는 그 사건」, 1988년 6월2일.
- 현대신문. 우리들은 4·3을 보았다, 1988년 4월15일.
- 현대신문. 4·3 강연에 대한 제언 「탈이념적 입장과 시각서 보아야」, 1988년12월1일.

< 잡지 >

- 김민우. 「태평 (통권20호)」, 평양, 1949.
- 부만근. 「뿌리깊은나무 (제주도 역사)」 1983-1984.
- 김석범. 「신부 (인터뷰)」, 1988년 9호.
- 「이론과 현실 (남포당 적화전력-4·3과 관련하여)」, 1985.
- 한기영. 「문예중앙 (한라산과 문학)」, 1987 여름호.
- 김민우. 「아사하저널 (4·3 제주도 사건)」, 1988.
- 「주간한국 (40년만에 재조명되는 비극의 4·3 폭동)」, 1988년 4월24일.
- 한길원. 「민족지성 (한라산)」, 1988년 4~7월호.
- 조덕승. 「주간조선 (민족 대드라마의 증

- 언)」。주간조선, 1988년 5월8일~6월5일.
- 한장판. 「생이깊은물 (누게고라 하소연 해집니까)」, 1988년 9월.
- 김석희. 「88 실천문학 (망울)」, 1988년 여름호.
- 고창훈. 「실천문학 (4·3 민중항쟁을 보는 시각과 연구과제)」, 1988년 여름호.
- 홍명숙. 「여성동아 (양남자 할머니)」, 1988년12월.
- 월간조선 「4·3의 치유와 화해」, 1989년 4월
- 달라연구15·16호, 1988년 3월1일.
- 한민화. 「월간 사회와 사상 (용강마을 진상)」, 1989년 1호.
- 조덕승. 「신천지 (유월의 제주도)」, 신천지 3권 6호, 1948년 7월.
- 홍한표. 「신천지 3권 7호, (통탄의제주, 이모저모)」, 1948년 8월.
- 「과학과 사상 (해방조선 I-민주주의 민족전선)」, 1988년 5월.
- 조 매월. 「과학과 사상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1988년 8월.
- 「탈 (보도연맹사건, 남원학살, 화순탄광사건)」, 1988년 12월, 1989년 1월.
- 「탈 (한빛한 4·3 일에서는 제주)」, 민주연론운동협의회, 1989년 2월.
- 정용남. 「현대공론(재정립되어야 할 반공주의)」, 1988년 6월.
- 유관중. 「현대공론 (제주도 4·3사건의 진상)」, 1988년 4월7일.
- 「월간중앙 별책부록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중앙일보사, 1975년 1월.
- 「월간중앙부록 (비록 한국동란)」, 중앙일보사, 1977년 5월.
- 이수립. 「월간중앙 (김인성 할머니)」, 1988년 10월.
- 「월간중앙(피를 흘릴 수 없는 비극)」, 1989년 4월.
- 김광식. 「월간중앙(새롭게 조명받는 제주도 4·3 사건)」.
- 「신동아(분단원인)」, 동아일보사, 1987년11월.
- 이호재. 「신동아(전후 한미관계의 재조명)」, 1986년 11호.
- 신용환. 「신동아(해방전후 한국인의 역사의식)」, 1986년 11월.
- 강만길. 「신동아(김구·김규식 남북협상)」, 1987년 1월.
- 이정식. 「신동아(여운중·김규식 좌우합작)」, 1987년 5월.
- 전덕규. 「신동아(이승만의 단정론과한민당)」, 동아일보사, 1987년 5월.
- 김남식. 「신동아(남포당 총비판)」, 1987년 6월.
- 김광식. 「신동아(분단과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일보사, 1987년 8월.
- 이상돈. 「신동아(해방전후 총평)」, 1987년 8월.
- 「신동아 부록 (60대 사건)」, 동아일보사, 1988년 1월.
- 오성환. 「신동아 (40년 제주도의한, 4·3사건의 진상)」, 1988년 4월.
- 「신동아 (소련은 어떻게 김일성 정권을 세웠는가)」, 동아일보사, 1988년11월.
- 「제주도 (4·3의 파편들)」, 1988년 통권 제85호.
- 「제주도」, 1963년 3월 통권 8호.
- 정민태. 「월간 관공제주 (40년간 가슴을 에 이워왔던 아픔 4·3사건의 진상)」, 1988년5월.
- 박서동. 「월간 관공제주 (세번 죽었어야 했던 증남은이의 피에 젖은 4·3 사건)」, 1988년 6월.
- 정민태. 「월간 관공제주 (40년전 피의 그날, 그 현장을 가다)」, 관공제주사, 1988년 5월 6월호.
- 「월간 관공제주 (4·3 증언)」 관공제주사, 1988년 8월호.
- 조남수. 「월간 관공제주 (젊음이라는 이유만으로 4·3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1988년 9월.
- 박서동. 「월간 관공제주 (어머니의 殘影은 곁에 닿은 뒷머리의하얀 가리마)」, 1988년10월.
- 조남수. 「월간 관공제주 (4·3 진상이 밝혀지려는가)」, 1989년 2월.
- 박서동. 「월간 관공제주 (4·3 폭동은 6·25의 前哨戰이었다)」, 1989년 2월.

< 저서 >

- 김정원.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 김종명. 「조선신식민주의 혁명사」, 東京五用書房, 1953.
- 김종범·김동운. 「해방전후의 조선진상」, 돌베개, 1984.
- 김종완. 「해방10년」, 회광사, 1955.
- 김준엽·김창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자

- 료집」,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67.
- 김창준. 「북한 15년사」, 지문각, 1962.
- 김정원. 「연표 한국현대사」, 한울림, 1984.
- 김대능. 「濟州島史論」, 세기문화사, 1982.
- 김학준. 「한국문예와 국제정치」, 박영사, 1981.
- 김형욱. 「增補納邑郷史-濟州道沿革」, 평법사, 1984.
- 「조선요람」, 남조선과 도정부 서무처, 1948.
- 「남제주군지」, 남제주군 문화공보실, 1986.
- 내무부지안국. 「한국경찰사」, 광명인쇄소, 1972.
- 「대한경찰전사」 1권, 내무부지안국.
- 내무부지안국. 「경찰10년사」, 동원인쇄, 1958.
- 노종선 「민족과 통일」, 사계절, 1965.
- 대한경찰전사 발간회 「대한경찰전사 제1집」, 대한경찰전사 발간회, 1975.
-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간행회. 「대한민국 건국10년지」,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간행회 1956.
- 대한민국 근대36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근대36년사」, 공문문화사, 1981.
-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7권」, 국사편찬위원회, 1974.
- 동아일보사. 「사건으로 본 한국백년(1876~1978)」, 동아일보사, 1978.
- Gain, Mark. 「해방과 미군정」, 까치, 1986.
- 문화선전성. 「해방후 4년간의 남반부인민의 투쟁과정」, 평양, 1949.
- 「朝鮮革命史, 民族問題研究論」, 東京ユリテ評論社, 1967.
- 박광동. 「박헌영-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인강사, 1983.
- 박경식.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1986.
- 박구병. 「한국현대사」 제2권, 신구문화사, 1974.
- 박기철. 「한국정치사」, 1974.
- 「제주사30년사」, 제주시, 1985.
- 이나영. 「조선민족 해방투쟁사」, 동경조선문예연구회, 1962.
- 임영삼. 「조선위원장 보고서」, 돌베개, 1984.
- 「조선전정사」, 동경, 1967.
- 조선전사. 「조선전사23-24권」, 평양과학사 출판사, 1981.
- 민중문예연구회. 「조선혁명사」, 동경, 1967.
- 「좌익사건실록」, 대경출판, 1965.
- 「지미의백-공판리지」, 종달리, 1987.
- 함창원. 「창군」, 박영사, 1984.
- 백도남. 「한국과 선거: 총선을 통해 바라본 한국정치」, 조소위실험대학, 1978.
- 「평화의 동경」, 국제보도연맹, 1949.
- 윤기정. 「한국공산주의 운동비판」, 1985.
- 한창수.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지양사, 1985.
- 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지양사, 1985.
- 김종규. 「한국근대사의 이태우로기」, 논장, 1988.
- 양상익. 「한라산의 메아리」, 제주대학 영문학과, 1984.
- 라우터 백. 「한국 미군정사」, 돌베개, 1984.
- 최상용. 「한국사학연구」, 한길사, 1983.
- 김정원.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력」, 박영사, 1983.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청사, 1977.
- 육사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일신사, 1984.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제주도 인민위원회」, 일월서각.
- 선우기성. 「한국현대 운동사」, 글문사, 1976.
- 임건원. 「한국 현대사」, 삼민사, 1986.
- 김정원.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 고문순. 「박헌영과 4·3 폭동」, 1988.12.
- 유근본부. 「방사연구제11집」, 창문전사, 1980.
- 송호순. 「북괴도발 30년」, 북한연구소.
- 현길원. 「4·3도 유채꽃」, 전예원, 1988.
- 김양학. 「4·3사건 실상기」, 토산리.
- 양한권. 「4·3사건의 발생배경-제주도현대사의 재조명」, 제주사회연구협회, 1988.4.3.
- 「사건으로 본 해방36년」, 4·7연회회, 1981.

이 책 한권을 읽고 교단에 서라!

- * 한국·과학적 문장론의 무너리~
- * <고교국어> 교과서의 악문지적으로 「이달의 화제」 (「신동아」 '86.9)에 오른 장교수의 패저-
- * 새헌법 문장의 잘못을 지적한 장교수의 독심 (<말과 글> '88.10)-
- * 문장론 전문가가 파헤친 <독해>와 <표현>의 공식과 법칙들-

교단을 위한 문장론개설

장재성 지음

- 추천사
- 「문장학」을 개척하는 끈기에 찬사를 보낸다
- 허웅 (한글학회 이사장)
- 일본학회에서도 아는 이가 많은 장교수의 책은, 교단의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것이다.
- 가버시마 다다오 (樺島忠夫) 大阪府立大교수—

문장표현력—그것은, 정신적 재산목록 제1호요, 표현지도의 기술—그것은, 국어교사 자격 제1호다

제주문화 발행 값 6천원

판매: 대학 구내서점/제주서점
서울판매: 교보문고/종로서적

제주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申 幸 澈 著

한글 농촌에 있어서 마을단위 지역사회의 농민들 삶의 중요한 지역단위가 되고 있다. 이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느정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주민들 스스로 그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 * 1章: 서론
- * 2章: 이론적 배경
- * 3章: 연구 방법
- * 4章: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의 기본유형
- * 5章: 지역사회의 특성과 권력구조의 유형
- * 6章: 지역사회특성 및 권력구조와 지역사회성취 (동원)
- * 7章: 결론

<값 5천원>

一 志 社

4.3제주대학살의 증언

한라의 통곡소리

오성찬 채록·정리

40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묻혀지고, 지금도 묻혀지기를 강요당하는 이유는, 혼돈의 시기에 빚어진 이 사건이 엄청난 까닭인듯 하다. 역사의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져야 마땅하며 또한 밝혀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시급성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일이 안 일어나가 해안 한다.

- * 제1부: 이어도 싸나
- * 제2부: 산으로 갈거나 해안으로 갈거나
- * 제3부...올해도 한라산에는 진달래꽃이
- * 제4부: 이태죽고 저태죽고
- * 제5부: 잊혀진 이름들
- * 부록: 로마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판결기록, 희생자 명단.

소나무 <값 3,500원>

국제외국어학원

- * Video회화에서 외국인회화 Free Talking으로 연결 영어회화 완성
- * 문법과 Video회화 연합으로 일어회화완성
- * TOEIC LATT 주말특강으로 취직승진 해외연수 대비
- * TOEFL로 유학, 대학원 시험에 대비
- * 기본영어, 종합영어, 실력기초로 기초실력 확립
- * Time Reading으로 독해력발전
- * 통역 Guide준비반 (9월시행예정)
- * Listening및 Speaking교육

국제는 도교육위 지정시험강습소
TOEIC 제주지사

舊, 제주신문사 2층

☎ 23-1879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대평양화학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대평양화학**

레이디, 사는 모습이 신선하다 지지 레이디 레몬

레몬의 향기처럼
 나의 하루는 얼마나 신선한가.
 나의 봄날은 얼마나 산뜻한가.
 날마다 생생한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녀 —
 레이디,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 젊은 여성의 피부생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한 지지레이디 레몬

지지레이디는 피부의 젊음을 자연스럽게 가꿔주면서, 활동이 잦은 레이디들의 피부관리 및 피부손상을 보다스피드하게 도와줍니다.

- **피부보습유지** : 각종 보습성분의 함유로 피부기층의 보습 기능을 도와주고 언제나 촉촉한 피부상태를 유지해줍니다.
- **피부탄력유지** : 탄력성유성분인 올라스트인 함유하여 피부의 탄력과 유연성을 지켜줍니다.
- **피부기능개선** : 각종 비타민, 유도체의 성분전달으로 수분·에너지 중추들의 피부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관장·수분·지기차)

• 지지레이디 레몬 보습크림... 80g - 5,800원	• 지지레이디 레몬 모이스처라이저... 110g - 6,000원	• 지지레이디 레몬 리우레워너... 110g - 7,000원
• 지지레이디 레몬 클로크림... 80g - 6,000원	• 지지레이디 레몬 크림마스크... 80g - 5,700원	• 지지레이디 레몬 모이스처크림... 50g - 6,000원

숙녀전용화장품
아모레
사.사.레이디

■ 이모레소비지선택실전형 :
 • 서울 (724) 8080 • 부산 (462) 8080 • 대구 (72) 8080 • 광주 (223) 8080 • 인천 (431) 8080
 • 대전 (524) 8080 • 대전 (44) 8080 • 광주 (46) 8080 • 제주 (43) 7117

會 費 : 2,000원
제주대학교 한림공고 동문회

□ 우리대학의 3월 행사를 돌아보며

大學의 主體者가 돼라

自視의 분위기로부터 깨어나서

양진선
국어국문학과·3년

진 겨울방학동안 품에 배인 나태함을 벗어버려야 하는 3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이라는 큰 의미를 준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3월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 한 학기가 결정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책상앞에 앉아서 3월의 얼마남지 않은 날들을 헤아려 보며 한달동안의 캠퍼스 생활을 그려보았다.

'89년도 1학기 개강과 더불어 1천 8백여명의 새가족을 맞이한 캠퍼스에는 화과마다 수강신청으로 빚어지는 온갖 파란들, 모화과와 수업거부파들이 총장실 점거농성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과민주화 투쟁, 이렇듯 아찔한 3월은 어수선했고 투쟁의 구조로 시작되었다고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3월의 행사들을 살펴보고 향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라는 이름아래 연합대학과 신임생 환영회가 열렸다.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총대위원장, 연합대학, 동아리 연합회, 여학생회, 동맹리 연합회 등과 8개 단과대학학생회가 함께 14일에 야외음악당에서 연합발대식을 가졌다. 여기에는 8개 단과대학이 자체 발대식을 가진 후 배두대와 한라대로 나누어 연합발대식을 거쳐 야외음악당에 모였다. 연합발대식은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제, 총학생회장 인사, 학생처장 격려사, 제헌헌장, 제헌헌장, 운영위와 본부기구 소개, 통일열린노가파단체 등으로 진행되었다.

17일까지 열린 신임생 환영회는 15일부터 각 단과별 신임생 환영마당이 계속되었고, 재학생과 신임생이 함께하는 민중가요 경연회가 15일 야외음악당에서, 16일에는 신임생 환영회 세계청년학생축전 성사를 위한 단축마라톤대회가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 사무처장 장기표씨의 「현시기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이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17일에는 동아리연합회 주최의 신임생 환영마당이 펼쳐졌다. 20일에는 법정대학생회의 신임생 환영한마당이, 22일과 23일에는 여학생회의 신임생을 위한 한마당이 마련되었는데, 인문대학 주최로 21일에는 지선스님 초청강연이 있었다.

위에서와 같이 3월의 여러 행사들을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지난해 총학생회와 각 단과학생회간의 불화로 인해 서로가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올해 연합발대식은 각 자치기구간의 원활한 의견교류와 더불어 전 제대인이 하나가 되기를 꾀한 움직임이라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는 준비위원회가 총학을 비롯한 각 자치기구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기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둘째, 연합발대식이 학내 자치기구의 연대감 형성이라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각 단과에서 자체 발대식을 가진 후 연합발대식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 총학생회의 발대식을 위한 인원동원이라는 인상을 들게 했고, 이것은 모자이크기에서 연합발대식이 끝난 후에야 연대감과 교섭을 지내 행사의 선수가 뒤바뀔 느낌을 들게 했다.

셋째로 연합발대식 진행에 있어서도 연합대학이 미처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발대식이 시작돼 진행부의 진행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이에 총학생회 학생들이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라는 이름아래 연합대학이 미처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발대식이 시작돼 진행부의 진행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이에 총학생회 학생들이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라는 이름아래 연합대학이 미처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발대식이 시작돼 진행부의 진행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넷째로, 연합이라는 형식만을 빌렸을 뿐, 연대와 거의 다름없이 이뤄지는 행사 내용은

학생들에게 신선감을 줄 수 없었다. 또한 기구별 신임생 환영마당에서도 행사내용이 연년과 비슷하거나, 각 자치기구간에 비슷한 경우도 있어, 심도 있는 기획이 아쉬웠다.

다섯째, 각 자치기구의 신임생 환영마당이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 기간에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사범대학이 이 전에, 여학생회와 법정대학생회가 그 이후에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연대감 형성이 부족하다는 느낌과 신임생 환영회가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 이후까지 이어짐에 따라 학내에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지루함마저 느끼게 했다.

여섯째, 연합발대식을 제외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신임생을 위한 환영마당은 신임생보다 재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환영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일곱째, 이번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가 신임생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고리 설정과 민족의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역사적 정치적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그 의의를 뒀으나 대부분의 행사가 치러지는 가운데도 행사의 취지와 자치기구의 특성에 맞춘 내용의 다양성과 신중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우리의 땅 제주에 관한 것으로서, 역사·문화·현실의 관점에서 민족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인민동맹이라는 인상을 들게 했고, 이것은 모자이크기에서 연합발대식이 끝난 후에야 연대감과 교섭을 지내 행사의 선수가 뒤바뀔 느낌을 들게 했다.

셋째로 연합발대식 진행에 있어서도 연합대학이 미처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발대식이 시작돼 진행부의 진행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이에 총학생회 학생들이 「'89아라민족해방총정제」라는 이름아래 연합대학이 미처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발대식이 시작돼 진행부의 진행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넷째로, 연합이라는 형식만을 빌렸을 뿐, 연대와 거의 다름없이 이뤄지는 행사 내용은

학생들에게 신선감을 줄 수 없었다. 또한 기구별 신임생 환영마당에서도 행사내용이 연년과 비슷하거나, 각 자치기구간에 비슷한 경우도 있어, 심도 있는 기획이 아쉬웠다.



이것부터 고쳐자

무성의한 태도와 학생회관, 그리고 법정대중앙강, 사범대학에서 흘러나오는 학생기의 지나친 소음은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얼굴을 찡그러게 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행사가 끝난 뒤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집합부족에서도 끝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행사 뒷처리에도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으로 3월동안에 열린 각종행사의 문제점을 요약할 수 있다. 이에대한 해결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행사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참여학생들은 행사내용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관자적태도가 아니라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한다.

3월 한달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학기를 격정하는 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여러행사에 이러한 패턴이 다시 생기면 대학의 주체자로서 행사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용단을 필요로 한다. 이제 자치구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행사의 진행을 통해 그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행사가 끝났더라도 패배하지 않는

고 찾아서야 할 시기이다. 아직도 정보공학과와 화과민주화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나, 화과민주의 무관심한 태도와 일반학생들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 학과와 문제만이 아닌 바로 우리 제대의 모습이며 상황인 것이다. 또한 아직도 '89학년도 예산확정이 되지않은채 학교의 각기구들은 예산부재(?)의 상황을 맞고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때 아직 아찔한데는 채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3월이 가고 새로운달 4월이 온다.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했고 또다른 시인은 갈아엎는 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우리는 3월을 발판삼아 4월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는 시형학회를 거쳐서 새를 태어날수 있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갈수 있다.

또 40여년전 노란 유채꽃을 발판삼아 4·3을 위해 애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다. 제주의 역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겪었던 4·3을 기억하며 그들의 부끄럼이 없는 후예들이 되어야 하겠다. 자, 이제 4월이 보인다.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참된 지성이니 되자.

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각 학과 1년동안의 학문활동의 산출인 학회지임을 감안하여 각 과의 학문적 특수성이 애매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학회지발간에 따른 학회원들의 참여의욕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과가 소수의 특정학생들을 지목하여 논문을 맡기는 형편이라 글쓰지않는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과의 학회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논문을 게재하기전 과총회합식을 통해 논문발표를 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러 문제점과 아울러 학회지발간의 난점은 예산관계이다. 학회지를 발간하는데는 그 부피에 따라 최저 4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소요된다. 이 비

강연초록

全民聯사무처장 장기표氏 초청강연

“기층민중의 역량을 강화해야”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도정에 놓여있다. 이것은 해방이후 40년간 분단과 외세속, 군사독재로 말미암아 축적된 사회구조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의 변화는 과거의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그질을 달리하는 민중주체의 민중시대를 여는 변화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민중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변화·발전의 객관적인 조건 자체가 민중해방을 위한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주체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①주체적인 사상, 이론, 이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②조직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③사상, 이론, 이념의 구체적 확립과 조직적인 통일성에 기초해서 우리 투쟁이 통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때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을 사회의 변혁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민중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운동을 위해서는 민중주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즉,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운동은 사회변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개방화나 아니면 사회변혁이나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생산력의 발전과 이것에 기초한 대중운동의 고양에 기본적으로 사회변혁의 물결인 토대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방화의 물결에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지금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에서 많은 조직이 탄생되고 있고, 투쟁 또한 엄청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직과 투쟁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배세력의 개방화 기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군사독재 정권은 개방화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개방화 기도를 거부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변혁을 이룩해 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이 선진적인 노동자나 학생들만에 의해서 전개될 것이 아니라 국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확보한 가운데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원리를 입각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지어 보겠다. 지난해 11월23일 독재자 전두환이 국민에게 사과해명을 했다. 또 안기부장·경호실장을 지냈던 장세동이 구속되기도 했다. 물론 이것들이 곧바로 지배세력의 물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자체가 또다시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코자 하는 엄청난 음모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투쟁의 엄청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사독재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중화를 전진시켜 나가고 있음을 상기하여,



89년도 중간평가 국면에서 반드시 노동운동·농민운동·도시빈민운동·민중정권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간평가에 대한 전민적인 입장을 지난 3월 9일 밝혔다. 노동운동가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고 노동권은 부정적 것들 통해서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 1년이지난 지금에도 그가 항상 다짐하던 5공비리와 관주학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권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그리고, 물러나게할 계기로써 중간평가가 활용돼야 한다. 이것이 전민적인 입장이다.

이 국면에서 노동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대중의 각성된 투쟁이 있을때만이 노동운동의 공약사항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군사정권을 물리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군사정권은 6·29이후의 일정정도의 개방화 조치를 포기하고 노골적인 폭력탄압으로 나오고 있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28일 「공권력 회복선언」이라는 것이다.

「공권력 회복선언」은 바로 민중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폭력·탄압을 선언한 것이다. 바로 그 선언이 있었나로 토대로, 현대노동자, 대우정원, 흥남고속 등에 대한 야만적인 폭력이 자행됐다.

요컨대 저들은 노동문제나 또는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어쨌든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바로 저들이 폭력적인 탄압을 가해서라도 군사독재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결국, 우리의 단호한 투쟁에 의해서만 저들의 이러한 정권유지 책략을 분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단계가 설정될 수 있다. 하나는 퇴진시키기까지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퇴진시킨 이후의 민중민주정부수립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단계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쪼록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노동운동의 이러한 정권유지 술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줄기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바란다.

끝으로, 민주화 운동이란 무지하고 험악한 민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자기 자신의 권리와 행복, 해방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이런 의식속에서 제주도에서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부탁한다.

新刊

「중국어문화중국정신」
—C.A.S. 윌리엄스 著

중국학 학자인 C.A.S. 윌리엄스가 중국의 변혁이었던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그 대륙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개념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해온 결과, 필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실천적 삶의 모습이나 그의 문화세계의 구체적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풍속과 예술, 학문을 비롯하여 문화 전반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과 상징들을 2백66가지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책이다.

중국의 풍속과 예술, 학문을 비롯하여 문화 전반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과 상징들을 2백66가지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책이다.

리했다. 각 항목들의 설명은 사전적이지 어휘풀이처럼 머물지 않고 그것들의 유래와 더불어 그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지는 특수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삼과 4백2개를 곁들여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민중의 벗고리끼」
—鄭判龍 著

이 책은 현대 소련문화의 전통을 확립하고 세계 프로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박실 고리끼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전기적 개설서이다. 고리끼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생애에 대한 연구가 필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실천적 삶의 모습이나 그의 문화세계의 구체적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통체〉 3권 8백원

대학서를 순례시리즈 ③

우리들은 “뚝” 클라이머



우리의 뜨거운 함성을 끝없는 메아리에 담아 널리 널리 온 누리에 우리들의 젊음을 실어 보냈다.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미에 맺힌 땀을 씻어내고 배낭과 자일을 주스리면서 우리의 정가산행은 시작되었다. 산이 있기에 산에 오른다는 말로리경의 깊은 의미를 굳이 헤아리지 않아도 아름답고 수려한 이 땅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싶어 산악부에 가입했던 우리세대의 클라이머들. 철옹성의 우렁찬 구령소리에 일사불란한 준비운동을 마치고 한가닥 자일에 젊음을 불사르면서 우리의 암벽등반은 시작되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르내리며 정상은 가까워지고 서로 연결된 자일에서 느껴지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정은 발 아래 펼쳐지는 대자연의 파노라마와 함께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가슴쿵쿵한 감동이였다. 정상위에 모여서 간단한 회합을 갖고 모두 힘차게 씨름구조를 외쳐보았다. 케이—악 우리의 뜨거운 함성을 끝없는 메아리에 담아 널리 널리 온 누리에 우리들의 젊음을 실어 보냈다. 우리의 메아리는 북악골을 넘고 도봉산을 넘어 민족의 영산 백두산까지 힘차게 울려 퍼지리라. 젊음의 패기와 낭만을 하얀거품의 신선한 크라운맥주와 함께 나누며 승오의 유머와 준승의 묵직한 바리톤에 하산길의 여유를 찾는다. 젊음의 뜨거운 가슴을 붉은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크라운맥주로 시원히 적셔주면서 자! 하나가된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부라보.

K대학교 산악부 2년 장문수

크라운맥주